

# 광주상의 회장 선거 2파전...변화와 혁신 기대

### 3월20일 18년 만에 경선...제조 김보곤 vs 건설 한상원 대결 투표권 돈으로 구입 가능해 과열 양상...추가회비 26억원 그동안 '나눠먹기식' 회장 선출 관례 탈피...새바람 이뤄야

지역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지역 최고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3월20일 치러진다.

제 25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18년 만에 경선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보곤 DK(주) 회장과 한상원 (주)다스코 회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는 '제조업' 대 '건설업'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계 '얼굴'을 뽑는 자리지만, 사실상 투표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조로 인해 이번 선거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기자회견...추가회비만 26억원 = 2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오는 3월 12일 제25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를 통해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을 선출한다.

이들 의원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선거에서 김보곤, 한상원 두 후보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47표를 획득하는 후보자가 상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셈이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선거 양상에서 두 후보자는 전례없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광주상의 회장으로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먼저 지난 23일 김보곤 회장이 기자회견을 예고

하자, 한상원 회장이 뒤따라 같은날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

김보곤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상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광주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뒤이어 같은 날 오후 한상원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회장 자리가 지역에 봉사할 기회라고 생각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각오로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경쟁 과열은 앞서 회비 납부를 통해서도 드러나 바 있다.

광주상의는 지난 22일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획득 조건인 회비납부를 진행한 결과, 575개 회원사가 회비를 완납하면서 총선거권수는 3304표로 확정됐다.

특히 이중 1표에 200만원인 추가회비가 약 26억원 납부되면서, 선거는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회원사 1곳 당 최대 30표를 획득하기 위해 추가회비를 납부했기 때문인데, 많게는 29표를 추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5800만원을 내야한다.



김보곤 디케이 회장

돈으로 투표권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내구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잇따랐다. 또 비전이나,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밀실 속 나눠먹기'식 회장 선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광주상의 한 회원사 대표이사는 "그 동안 나눠먹기식의 회장 승계가 있어왔다"며 "그 부작용이 광주상의 명에 실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공정하고



한상원 다스코 회장

투명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선거 제도의 필요성에 생각을 같이했다.

김보곤 회장은 "변화에 공감하고 있고, 금력(金力)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상원 회장이 "추가회비로 획득할 수 있는 표수를 5배수로 제한하는 것을 제

안하고 싶다"며 "기업다운 기업 규모를 갖춘 회사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VS 건설업...이번엔 제조업이 차지하나 = 이번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제조업대 건설업 구도를 띄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20~21대 회장을 역임한 럭키산업 박흥석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건설업계에서 회장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17~19대(2002~2007년) 회장은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이 역임했고, 19~20대(2008~2009년) 회장은 이승기 삼남건설 회장, 22대(2015~2018년) 회장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선출된 바 있다.

연임 중인 현 회장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또한 건설업이다.

김보곤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DK는 생활가전 프레스 금형산업에 중점을 둔 제조업, 도로안전시설물도 대표되는 한상원 회장의 다스코는 건설업계로 분류된다.

두 후보자는 각각 동종업계 지지를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선거인이 확정되면서 양 후보자가 비슷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제조업이 상의 회장 자리를 탈환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와 국제 경기 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 건설업 위주의 광주상의가 지역 경제계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자가 우위라는 평가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만 건설업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않고, 반(反) 건설업계 기류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AI로 에너지 30% 절감"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출시

### 빅스비 통한 제어 기능 추가 움직임 인식 부재 절전·건조 가능

삼성전자가 26일 에너지 절약 기능을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사진)을 출시했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신제품은 에너지 절약 기능을 강화하고 빅스비(Bixby)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스탠드형 제품인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모든 모델이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으로, 냉방 효율이 1등급 최저 기준보다 10% 더 높은 '고효율 에너지 절전 모델'도 확대된다.

'스마트싱싱' 앱에서 AI 절약 모드를 제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고, 빅스비가 적용돼 가전 제어가 한층 편리해진다.

특히 스마트싱싱 음성인식 기능으로 에어컨을 거쳐 타 가전까지 제어할 수 있다.

에어컨 제어 시 ▲운전 예약 ▲외부 날씨에 따른 운전 ▲부가기능 설정 ▲에러 진단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음성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어컨을 켜고 끄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간단한 음성 제어는 와이파이가 연결조차 필요없다.

실내 움직임 인지 기능도 있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절전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끄는 '부재 절전',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건조 가능한 '부재 건조'가 작동된다.

출고가는 냉방면적(56.9~81.8㎡)에 따라 320만~678만원(갤러리 단품 기준)이며 벽걸이는 냉방면적(24.4㎡~48.8㎡)에 따라 109만~171만원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은행,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 5000만원 별도 출연 광주신보, 8억5000만원 보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북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문인 북구청장과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은행은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기로 했다. 광주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8억5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북구는 6.0%의 이차차액을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북구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재창업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647.08 (-20.62) |
| ↓ 코스닥        | 867.40 (-1.17)   |
| ↓ 금리(국고채 3년) | 3.340 (-0.034)   |
| ↑ 환율(USD)    | 1331.10 (+0.10)  |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